

4·3생존수형인들 100억대 형사배상 청구

형사보상과 달리 국가 불법 행위 책임 따져 구금 피해 가족들도 참여... 원고인단 39명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 형사 보상 판결을 이끌어 낸 4·3 생존수형인들이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 배상을 청구했다.

형사 보상이 국가가 구금 후 무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구금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면, 형사 배상은 국가가 구금과정에서의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이 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 배상은 국가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진다는 점에서 형사 보상과 차이가 있다.

제주4·3수형생존인과 유가족 등 39명은 지난달 29일 제주지방법원에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제주4·3수형생존인들이 위법한 군법회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국가 배상 소송이다.

이들은 제주4·3 당시 고문 등을 받고 억울하게 수형 생활을 했다가 올해 재심을 통해 70여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어 지난 8월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최저 8000만원에서 최대 14억7000만원씩 모두 53억4000만원의 형사보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들이 청구한 국가배상 금액은

103억원이다. 국가의 위법한 군법회의로 인한 구금과 출소 이후 전과자 신분으로 장기간 살아오면서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 배상 성격으로 모두 1인당 2억원을 청구했다. 또 구금기간 중 일을 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일일 수입과 체포 또는 수사 과정에서 있던 고문에 대한 피해 등을 추가적으로 각각 산정해 생존 수형인

의 경우 1인당 최소 3억여원에서 최대 15억원까지 청구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구금돼 4·3 이후 피해를 입은 가족 등이 참여하면서 원고인단은 생존 수형인 16명을 포함해 39명으로 구성됐다.

소송을 돕는 임재성 변호사는 “형사 보상은 (수형인들이) 구금돼 있던 기간에 대한 피해만 보상한 것”이라며 “이번 국가 배상 소송에서는 정신적 위자료와 일일수입 등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

은 (국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진정한 명예 회복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청구를 시작으로 4·3 배·보상 문제가 해결할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참여한 부원후(89)씨는 “학교를 가던 중 계엄군에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는 바람에 출소 후에도 후유증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없어 수의사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며 “법원이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려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4·3수형생존인이 지난달 29일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제주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무인탐사기 투입 대성호 선수 찾기 실패

해당 해역 시야 확보 어려워

대성호(29t급) 화재 사고의 실종 선원과 대성호 선수를 찾기 위해 수중 무인탐사기(ROV)가 수색에 동원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군 청해전함(3천200t·승조원 130명)은 사고 해역에 도착한 지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 대성호 선수로 추정되는 물체가 침몰한 해역을 중심으로 탐색을 이어갈 수 없어 수의사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며 “법원이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려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해역의 바닥이 진흙과 모래로 이뤄져 시야가 20cm밖에 확보되지 않아 선체의 형태 정도만 확인됐고, 실종자 발견 등의 성과는

없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1일에도 무인잠수정을 투입해 실종자와 대성호 선수 찾기에 나설 예정이지만 이날 제주도전해상에서 바람이 초당 9~16m 속도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1.5~4.0m로 매우 높게 일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해경은 밤낮 없이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대성호와 창진호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성호는 지난달 8일 오전 승선원 12명을 태우고 통영항을 출항해 그달 19일 오전 4시 전후로 발생한 화재로 선체 대부분이 불에 탄 후 침몰했다. 이 사고로 12명 중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됐다. 또 창진호는 지난달 25일 새벽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63km 해상에서 큰 파도를 맞아 전복됐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이상민기자

여제자 성추행 혐의 대학교수 경찰 수사

제주지역 한 대학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이 가르치는 여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도내 모 대학 A(60)교수가 불구속입건됐다.

A교수는 지난달 30일 밤 제주 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여제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이날 여제자와 저녁을 먹고 노래주점에서 자리를 옮겨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교수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교수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대학 측은 지난달 6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를 받고 A교수를 모든 강의에서 배제했다.

A교수는 경찰의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영장이 기각이 됐고 혐의도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자신 계좌 명의 빌려준 뒤 친척 돈 횡령 40대 징역형

제주지역에서 계좌 명의를 빌려준 뒤 40여 차례에 걸쳐 친척 돈을 횡령한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횡령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8월 친척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든 뒤 2018년 6월25일부터 그해 7월8일 사이 44회에 걸쳐 예금 1953만9697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서도 범행을 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제주 공공기관 청소노동자 근무환경 열악

강성민 의원 운영실태 분석 “복지예산 편성 않는 것 문제”

제주지역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들도 휴게공간 부족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노동자 휴게실 운영 현황과 예산 편성 내역’을 분석한 정책보고서 자료를 1일 발표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청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는 약 302명의 청소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총 124개의 청소근로자 휴게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청소근로자 휴게실이 없는 부서(또는 기관)는 5개로 4.0%, 전체의 약 11.3%에 해당하는 14개 휴게실이 에어컨, 17.7%에 해당하는 22개소는 선풍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또 난방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6.5%인 8개소, 샤워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전체의 약 38%에 해당하는 47개소, 휴게실 관련 규정이 운영되는 곳은 7.3%인 9개소였다.

특히 “2020년도 공무원 관련(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원, 운전직) 체육대회 등 복지예산은 총 2억3267만원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노동자 예산은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올해 여름 무더위 때문

에 서울대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가 돌아가셨다”며 “이를 계기로 도청을 비롯한 도내 모든 공공기관 청소노동자 휴게실 운영 실태와 예산 편성 내역 자료를 요구해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휴게실이 없거나, 에어컨과 난방기 미보유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행정당국은 이른 시일 내에 청소노동자 휴게실 점검과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이 경우 체육대회 등 복지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청소노동자 관련 예산은 1원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반드시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양어장 취수관 보수작업 50대 의식 잃고 쓰러져

지난달 30일 오후 4시 24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인근 해상에서 바다 양어장 취수관 보수 작업을 벌이던 A씨(56)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신고가 제주해경에 접수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동료 4명과 수중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섬지코지 해안서 낚시하던 50대 실종... 해경 수색중

서귀포시 해안가에서 낚시 중이던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실종돼 해경이 3일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7시25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섬지코지 주차장 인근 해안가에서 낚시하던 A씨(54)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해상에 추락했다는 주변 낚시객의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A씨는 해상 추락 당시 검은색 낚시 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이 사고 직후부터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A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태윤기자

사단법인 재제주전라북도민회 회장 선거 공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단법인 재제주전라북도민회 회원 여러분 가내에 평안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재제주전라북도민회를 훌륭히 이끌어갈 회장을 선거 관리 규정에 의거 제 45차 (사)재제주전라북도민회 2020년 정기총회 회장 선거 등록 내용을 하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입후보자 등록 자격**
가. 제주도로 이주하여 10년 이상 전라북도민회 활동 및 이에 기여한 분
나. 본적 또는 원적이 전라북도인 분
- 2. 제출서류**
가. 이력서
나. 재적등본(원적 및 본적 표시)
다. 본인 주민등록 초본(2020년 1월 1일 기준 10년 이전 포함) 각 1부
라. 도민회 발전 방향에 따른 의견서
- 3. 입후보자 등록**
가. 기간: 2019년 12월 5일부터 12월 14일 (10)일간
- 4. 입후보 접수방법.**
1). 직접접수: 유용선(010-5213-1955), 강정필(010-8706-6852)
2). 우편접수: 제주시 연동 260-30 일성트루엘오피스텔 609호 강정필 앞

2019년 11월 26일

사단법인 재제주전라북도민회 선거관리위원회

합격

제30회 공인중개사 최종 합격자

강민지 강서은 강순화 강양순 강주천 고광철 고영림 고은정 고자영 구민희 김동률 김미애 김미선 김병희 김보나 김순정 김여름 김유아 김정길 김정아 김준호 김한철 권수현 권바름 문춘형 박종선 변윤희 부름미 부윤미 소현정 송은영 신윤경 안미경 안현정 안혜경 양선희 양윤정 양은혜 양인영 오영애 오정심 오택근 이마자 이정훈 이혜옥 임기영 임은향 정애리 정현주 조지영 최우봉 한성훈 한효린 함대인 함희복 현명식 현승운 현윤지 황경주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합격자

강리희 강문희 강서영 강유숙 강인형 강차미 강채연 강홍민 김선영 권승미 서영란 신선아 임정주 장선미 장원실 한상진 현준호 홍은주

“합격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탐라고시학원 교수, 동문 일동 -

12월 2일 개강

탐라고시학원

743-4393, 010-6693-1941

전액무료

매월 최대 400,000 지급
순서: 학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내선전기 실무자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대상 - 모집 조기마감될수있음
실업자 / 구직자 / 매출 1억5천 미만 사업자
교육기간
1월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 등
※ 필요서류: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7월 23일 종료과정 21명중 20명 취업
미취업자 취업 협의중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ewon.com

본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방지 가시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복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